



◆ 독일 Hermes, 프랑스 Euler와 합병 발표

독일 최대의 상업보험회사이자 연방정부의 공적 수출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Hermes는 지난 1월 31일, 프랑스 상업신용보증기관인 Euler와 금년 상반기 중 합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.

이번 합병은 독일의 민간 보험회사인 Allianz가 보유하고 있는 Hermes 지분을 프랑스 Euler가 전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, 동 인수자금은 우선주 및 후순위채권 발행, 주식처분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.

양 기관은 모두 Allianz의 자회사로서 Allianz가 Hermes의 지분 97.3%를 보유하고 있으며, Allianz의 자회사인 프랑스보증기관(AGF)이 Euler의 지분 63.2%

를 보유하고 있어, 합병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.

합병으로 탄생하는 신설회사의 명칭은 Euler & Hermes S.A.로 결정되었으며, AGF와 Allianz가 동 회사의 지분을 각각 56%, 10%씩 보유할 것으로 예측된다. 동 회사는 Gerling NCM(23.1%), Coface(14.8%) 등을 제치고 연간 매출액 18억 유로, 시장점유율 36.1%인 세계 최대의 보험회사로 부상할 전망이다.

한편, 양 기관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Hermes는 독일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공적수출보험 업무를 계속 취급하게 된다.

【프랑크푸르트사무소】